

전남도-여수시 섬 박람회 유치 갈등 해소

도 "여수시 계획 존중"... 개최 시점 203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시 2026년 개최 청신호... 권오봉 시장 "도와 협조 차질없이 준비"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여수시가 본격 추진 중인 '여수 국제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전남도는 오는 2027년 개최를 목표로 인정엑스포인 '국제 섬 문화 박람회 유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전남 TF팀을 꾸려 오는 2026년 국제 섬박람회를 추진 해 온 여수시와 중박·혼선을 빚었지만 최근 양 측의 협력이 이뤄지면서 여수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남도가 실무적으로 여수시의 섬박람회 유치 계획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전남도가 최근에 2027년 유치를 목표로 인정엑스포 박람회 유치를 추진해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여수 섬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섬박람회 개최를 두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혼선을 빚으면서 일각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에 정부가 1년도 안 돼 예산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과 전남도 관계자 등 실무 책임자들이 여수시청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엑스포 개최 시점을 2030년 이후로 미루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여수시의 국제행사 개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7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한 섬 문화 엑스포를 2030년 이후로 연기·추진하고 여수시의 국제행사 개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내용에도 개최지 선정 과업을

빼고 다시 재발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추진하는 박람회는 성격 자체가 달라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며 "올해 말 박람회 유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모두 마무리 되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기재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섬 박람회는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화태~백야 등 여수가 보유한 아름다운 섬을 잇는 연도교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수 섬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기재부) 후 비공인 엑스포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남도의 국제 박람회기구(BIE) 공인 엑스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다.

국·도비 등 200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보이며 아름다운 여수의 섬 생태와 관광자원을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주요 행사로 섬·교량 주제관(섬역사박물관, 교량박물관) 운영, 섬 문화 및 생태,

연륙·연도교 투어, 명품 섬 체험행사(학술대회, 문화행사), 연계 관광 등 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여수시는 2026년 '여수 국제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여수 관광의 제 2도약과 함께 아름다운 천연 섬 자원의 보존·개발·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섬 박람회 유치 관련 시민·전문가 의견 조사(긍정평가 시민 81.5%·전문가 90.6%)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확보, 올해 2월 용역 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략적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의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여수 국제 섬박람회가 꼭 필요하다"며 "박람회 성공개최로 지역경제 윤택효과는 물론 여수시를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휴양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 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음악제 성공 개최 힘 모은다

시·상의·KBS교향악단 협약... 지난해 수익금도 기부

여수시와여수상공회의소, KBS교향악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제3회 여수음악제 성공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2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3회 여수음악제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호 회장, KBS 교향악단 박정욱 사장, 여수교육지원청 송중대 교장,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김대수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를 통해 여수시는 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고, 공연장, 연습실, 사무공간 등의 제공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행사비 3억 원을 부담하고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KBS교향악단은 클래식 공연의 전문성과 방송·홍보 등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여수음악제' 운영에 역량을 발휘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제2회 여수음



악제 수익금 89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후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 기금은 사회 배려계층 음악 꿈나무 육성을 위해 사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으로 여수음악제 성공개최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기초로 여수음악제를 착실히 준비해 지역 음악 꿈나무 육성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여수음악제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예울마루, 여수세계박람회장, 이순신광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요엘레비가 이끄는 KBS교향악단과 국내·외 대표급 성악가 및 연주자가 여수를 찾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여수해경, 6월말까지 운영 집중적 재활치료도 도와

여수해양경찰서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들이 치료·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앞서 여수해경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투약자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자수기간을 마련했다.

대상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상습·중증 투약자와 제공·수수 행위자다.

여수해경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보호자·의사 등 관련인이 신고할 경우 내사·기소 중지 중인 대상자도 본인 자수로 처리해 운영의 모를 살릴 방침이다.

장인식 여수해경서장은 "특별기간 자수자의 경우 본인 의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마약환자 전문 치료 시설을 보유한 국내 22곳의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GS칼텍스는 최근 여수시 소호동 GS칼텍스사택 클럽하우스에서 '2019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을 개최했다. (GS칼텍스 제공)

2019 GS칼텍스 희망 에너지 교실 발대식

초등 3·4학년 역사체험 탐구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최근 여수시 소호동 GS칼텍스사택 클럽하우스에서 '2019년 GS칼텍스 희망 에너지 교실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S칼텍스 희망 에너지 교실'은 2010년부터 GS칼텍스가 미래 지역 사회의 주역이 될 여수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 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여수지역 40개 지역아동센터 중 매년 10곳의 어린이 200~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현재까지 30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올해 진행되는 희망 에너지 교실은 2017~2018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들이 내 고장 역사관 정립을 위한 역사체험 탐구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GS칼텍스는 역사체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2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후원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들은 4~5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문 강사들의 사전 교육을 받게 되며, 8월까지 여수지역 문화유적을 4개 테마로 나눠 답사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GS칼텍스 희망 에너지 교실은 여수지역 아동들이 꿈과 비전을 키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지역 아동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응급환자 생명 구한 소방대원들에 하트세이버 수여식



여수소방서가 응급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대원들에게 하트세이버 수여식(사진)을 가졌다.

2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소방위 방상철 소방위 등 27명의 대원들에게 지난 29일 오전 9시 대회실에서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란 심정지로 죽을 기로에 선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날 수상한 여수서 소방대원 2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면서 전남도에서 가장 높은 소생률을 기록했다.

김용호 여수소방서장은 "총각의 현장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낸 자랑스런 여수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장관, 4개 단계(신산업·정책·전환·재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환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군에 예산공여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력함에 공동 노력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